

수학 교사, 책을 쓰자!

책 쓰기에 관심 있는 수학 교사를 위한 길잡이

1. 책을 쓰기 위해 필요한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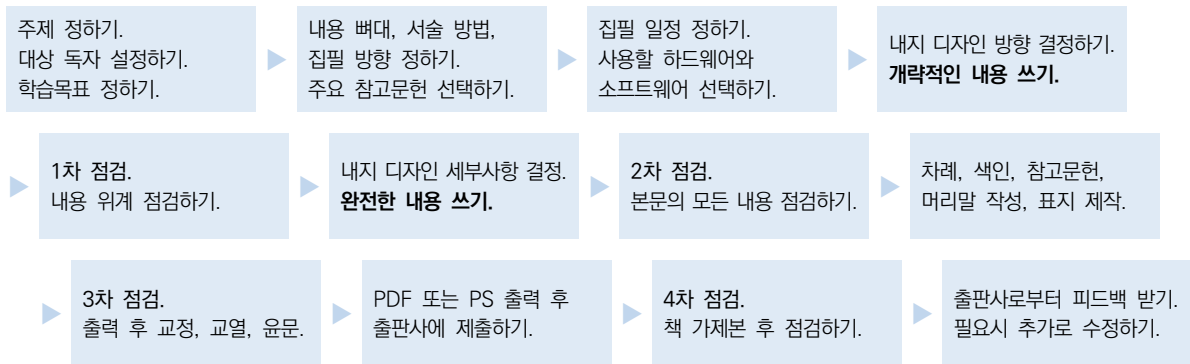
- 책에 담은 내용
- 책 쓰는 기술
- 책을 내어줄 출판사
- 강철 멘탈

2. 무엇을 쓸 것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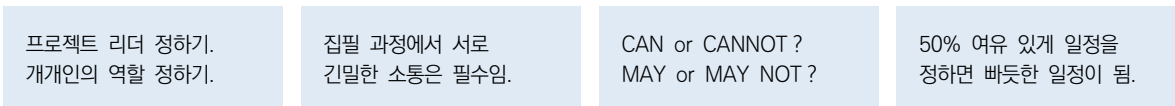
- 가장 자신 있는 주제를 쓰자.
- ‘내 것’이 없는 상태에서 ‘책 쓰기’만 하고 싶다면 그것은 지나친 욕심이다.
- 지금 이 순간 사람들 앞에서 한 시간 동안 강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곧바로 시작할만한 주제가 있는가?
- 근본적인 목표는 ‘책 쓰기’가 아니라 ‘내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’가 되어야 한다.

3. 어떻게 쓸 것인가?

- ‘말하기’와 ‘글쓰기’가 다르듯 ‘글쓰기’와 ‘책 쓰기’는 다르다.
- 책 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10권 이상의 책을 벤치마킹하자.
- 책 쓰기 과정 (1인 저자)



- 우리의 소원은 통일 — 용어 통일, 수식 기호 통일. (엑셀 파일로 관리하기)
- 책 디자인과 책 내용 쓰기는 유리된 작업이 아니다.
- 책 출판 계약은 저자와 출판사 사이의 관계에 따라 그 방법과 시기가 다르다.
- 저자가 2인 이상일 때 고려사항



이슬비 · <https://iseulbee.com>

이 교재는 2018년 12월 15일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열린 전문적 학습 공동체 세미나 3교시의 강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.

4. 협업하기

- 협업(공동집필)할 때 한컴오피스를 사용하면 불편하다.
- 굳이 한컴오피스를 사용해야 한다면 오피스 버전과 한글 파일(hwp) 서식을 통일해야 한다.
- 협업할 때에는 OverLeaf에서 TeX으로 작업하는 것을 권장한다.
- 수학 용어, 문장 표현 방식, 용어 번역 방식, 외국인 이름 표기법, 수식 입력 방식 등 여러 가지를 통일해야 한다.
- 각자의 능력의 50%만 발휘해도 될 만큼의 스케줄을 정하자! 그렇게 해도 결국 빠듯한 일정이 된다.

5. 기술적 측면

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인가?

- 퍼블리싱 도구 : 한컴오피스, MS 오피스, LaTeX, InDesign
- 그래프와 이미지 편집 도구 : GeoGebra, GSP, Cabri, Photoshop, Illustrator
- PDF 생성 및 편집 도구 : Acrobat, ezPDF, 한PDF, 알PDF
- 그래프 도구를 사용할 때 출력물의 라이선스 확인이 필요하다.
(GeoGebra로 그린 그래프를 캡처하여 상업용 저작물에 삽입하는 것이 괜찮은가?)

어떤 하드웨어를 사용할 것인가?

- 운영체제 : Windows, Mac OS, Chrome OS, Android
- 모니터와 프린터

어떤 글꼴을 사용할 것인가?

- 사용하고 싶은 글꼴 vs 사용해도 되는 글꼴
- 출판사에서 제공해주는 글꼴이 있는가?

삽입하는 이미지는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?

6. 온라인에 공개하기

- 집필한 책의 파일을 온라인에 공개할 때에는 PDF 파일로 공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.
- PDF 파일은 글꼴을 포함(임베딩)하므로, PDF 파일을 온라인에 공개할 때에는 사용된 글꼴의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한다.
- 한글 파일(hwp) 배포판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글꼴 파일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글꼴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다. 단 내려 받은 사람의 컴퓨터에 맞는 글꼴이 없으면 문서의 모양이 틀어질 수 있다.
- 저작권과 출판권은 다르다 — 책의 파일을 온라인에서 공개하기 전에 출판사와 협의해야 한다.

7. 독자와 소통하기

- 출판사를 통한 간접적 소통
- 블로그, 카페, SNS, 이메일을 통한 직접적 소통
- 독자의 요구사항

8. 좋은 글 쓰기 위해서

- 수학 책을 쓰려면 국어·영어·수학·사회·과학·미술을 다 잘 해야 한다!
- 서점에서 다양한 책을 열어보고 참고할만한 내지디자인을 발견하면 기록해 둔다.
- 글을 많이 읽고 어휘력을 늘린다. 수학책뿐만 아니라 문학책도 읽는다.
- 읽기만 하지 말고 베껴 써본다. 수학 교재에 있는 풀이를 그대로 옮겨 적어본다.
- 블로그에 글쓰기 연습을 한다. 처음에는 가벼운 주제로 짧게 쓰고, 점차 주제의 심도를 높인다.
- 책을 읽으면서 문장을 더 나은 표현으로 고쳐본다. (교정, 교열, 윤문 연습)
- 책을 쓰는 동안에는 사람 이름, 수학 용어가 정확한지 꼼꼼하게 찾아보고 검토한다.
- 교정, 교열, 윤문을 하기 전에 며칠 간 다른 활동을 하며 쉰다. (소믈리에가 감정 전 맑은 물을 마시듯.)
- 책상 앞에 앉아서 고민만 해서는 좋은 글이 나오지 않는다. 잘 먹고, 잘 쉬고, 충분히 운동하자.

9. 번역서 집필하기

- 직역 vs 의역 — 둘 다 아니다!
- 번역은 창작이다. 번역은 새 책을 쓰는 것이다.
- 수학을 잘 해야 수학 책 번역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. 영어를 잘 해야 저자가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한 미묘한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. 국어를 잘 해야 우리말로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다.
- 추천 글 1 : 수학 책 번역에 대한 단상 (정경훈, 대한수학회소식 제149호 6-8쪽)
- 추천 글 2 : 수학 책을 번역하려는 분들에게 드리는 부탁 (박부성, <http://pomp.tistory.com/964>)

10. 추천 서적

모두가 읽어야 할 책

-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(김민수, 그린비)
- 좋은 문서디자인 기본 원리 29 (김은영, 안그라픽스)
-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? (김정선, 유유)

책 쓰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책

- 편집자를 위한 북디자인 (정민영, 아트북스)
- 학술문서 작성 프로그램 LaTeX 바이블 (심송용, 최효근, 교우사)
- 번역가 되는 법 (김택규, 유유)
- 번역자를 위한 우리말 공부 (이강룡, 유유)

디자인 소양을 기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책

- 한국의 디자인 (김종균, 안그라픽스)
-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북 (로빈 윌리엄스 지음, 윤재웅 옮김, 라의논)
-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(원유홍, 서승연, 송영민, 안그라픽스)

학술적 글을 쓰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책

- 논문 잘 쓰는 방법 (움베르트 에코 지음, 김운찬 옮김, 열린책들)